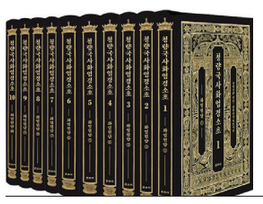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27~6/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6	숫타니파타 (빠알리대장경 / 쿳다까니까야)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	요가 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7	염불하여 왕생하고 왕생하여 성불하세 (순수한정토법문)	혜정 / 정전, 원왕생	운주사
3	밀린다왕의 물음 (수인총서2)	서정형	공감과소통	8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샘 솟는 원빈스님의 천수경	원빈스님	이층버스
4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청우당	9	한글 법보 염불집 : 삶속에서 독송해야 할 보배로운 가르침	원순스님	법공양
5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10	허공에 핀 꽃	원산스님	효림

책세상

청량의 〈화엄경소초〉 1200년 만에 완역 불사



청량국사화엄경소초-
화엄현담 1~10권
청량징관 찬술 / 관허수진 현토역주
운주사 펴냄 / 각권 2만원

방대한 〈화엄경소초〉 완역 첫걸음
100권 중 1차분 〈화엄현담〉 10권
번역문만 원고지 10만 매 분량
꼼꼼한 번역, 600개 상세 각주로
〈화엄경〉 핵심사상, '소초' 설명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청량국사(738~839)의 〈화엄경소초(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는 80권 본 〈화엄경〉에 소(疏) 60권, 초(鈔) 90권을 붙인 방대한 분량에, 대소승의 경(經)과 논(論)은 물론이고 유가(儒家)와 노장(老莊)까지 종횡으로 넘나드는 상세하고 치밀한 해설을 붙여 가장 뛰어난 〈화엄경〉 주석서로 꼽힌다. 그럼에도 이제껏 그 완역본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방대한 분량과 폭넓고 다양한 사상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역주서는 원문을 제외한 번역문만 원고지 10만 매에 달하는 방대한 작업으로 원문 현토와 함께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번역과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한 상세한 각주로 한국불교의 사상적 근간인 화엄사상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100권으로 기획하고 있으며, 1차분으로 〈화엄현담〉 10권을 우선 출간했다.

한국 불교는 화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한국불교사에서 화엄사상은 법화(천태)사상과 더불어 교학의 큰 축을 이루고 있기도 하거니와 한국 선의 바탕에는 화엄사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량징관 스님은 그런 〈화엄경〉 연구에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스님이라고 할 수 있다.



〈화엄경〉은 대승경전의 꽃, 대승경전의 최고봉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대승불교경전이다. 중국과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후 양국의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화엄경〉은 40권 본, 60권 본, 80권 본 세 가지가 있는데, 40권 본은 '입법계품'에 해당하므로 실제로는 60권 본과 80권 본 두 종류로 볼 수 있다.

청량징관 스님은 중국 화엄종의 제4조로, 화엄종은 초조인 두순으로부터 시작하여 2조 지엄, 3조 법장, 4조 징관, 5조 종밀로 이어진다. 해동화엄종의 초조로 일컬어지는 의상은 2조 지엄 아래서 수학했다. 청량 스님은 11세에 출가해 불교의 교학은 물론이고 외전인 유가와 노장의 경전까지 섭렵했으나 결국 〈화엄경〉에 귀착, 40세 부렵부터 102세에 열반할 때까지 무려 60여 년 생애를 〈화엄경〉 강의와 저술에 바쳤다. 저술만 42종 600여 권에 이를 정도로 〈화엄경〉 최고의 연구가라고 할 수 있다. 그 결정판이 바로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 (화엄경소초, 청량소초)이다.

〈화엄경소초〉는 동양철학의 대백과전서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1200년 만에 그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번 역주서의 출간은 한국불교 교학사에서 큰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역주서는 최초의 완역본인 만큼 역자의 의역을 배제하고 최대한 원문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했다. 즉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옮기고자 했다. 따라서 현대적 어법에 다소 어색하게 읽힐 수도 있다.

각 권마다 600개가 넘게 붙은 상세한 각주가 이해를 돕는데, 이는 관련된 주요 〈사기〉들을 망라하여 옮긴 것으로, 단연 역주자의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한국불교에서 〈화엄경〉이 가지는 역할과 위상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예로부터 불교전통강원(승가대학)에서 채택한 교과서로, 출가자는 누구나 공부해야 했다.

이 역주서가 한국불교의 사상적, 교학적 뿌리이자 수행과 실천의 토대인 〈화엄경〉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화엄경소초〉가 워낙 설명이 폭넓고 자세하기 때문에 〈화엄경소초〉를 좀 더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일종의 안내도 겸 개론 성격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출간된 '화엄현담'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엄경소초〉의 이해를 위한 일종의 '해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화엄경〉의 핵심 내용과 사상, '소초'의 체계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현담'은 화엄경과 화엄사상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불교교학과 중국불교 전반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는 출가 후의 다양한 공부 이력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현담〉은 〈화엄경소초〉를 이해하는 데는 물론이고 〈화엄경〉을 이해하는 데도 꼭 필요한 책이다.

관허수진(貫虛守眞) 스님〈왼쪽사진〉은 1971년 문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4년 수계하고 해인사 강원과 금산사 화엄학림을 졸업했다. 운성, 운기 등 당대 강백 열 분에게 10년간 참문수학했다. 1984년부터 수선안거 10년을 성만하고, 1993년부터 7년간 해인사 강원 강주로 학인들을 지도했다.

조계종 교육위원, 역경위원, 교재편찬위원, 고시위원, 중앙종회의원,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장 및 율주를 역임했다. 현재 부산 승학산 해인정사에 주석하면서, 조계종 단일계단 계단위원 · 존증아사리, 동명대학교 석좌교수, 동명대학교 세계선센터 선원장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인간으로 바라본 '석가모니'



인간 석가모니를 만나다-
내가 본 석가모니불의 발자취
최종웅 지음 / 올리브그린 펴냄 / 2만원

"석가모니불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생들의 본래면목을 알리기 위하여 사바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책 〈인간 석가모니를 만나다〉는 석가모니부처님을 인간으로 바라본 일대기다. 부처가 된 인간 석가모니는 어떻게 살았을까.

부처님의 일대기에 관한 저술은 많다. 나라마다 글쓴이마다 각각 조금씩 다르다.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싯다르타 태자의 이야기이다. 둘째는 출가 이후에 수행하는 보살의 이야기다. 셋째는 성불 이후 교화하는 부처로서의 이야기다. 각각의 글 사이사이에 비로자나불과 진각성존의 이야기도 조금씩 덧붙였다.

저자 최종웅은 1975년 대한불교진각종에 입문하여 스승의 길에 들어 유가 · 탑주 · 밀각 · 행원 · 지륜심인당 등에서 교화했다. 교육원장을 거쳐 유지재단 대표이사, 학교법인 회당학원 대표이사,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회당학회장 등 주요직을 거치고 제28대 통리원장을 역임했다.

박재완 기자

'스님이 쓴 금강산 유행기'



봉래일기
이면신 지음 / 이대형 이석환 하정수 옮김
올리브그린 펴냄 / 1만9천원

금강산은 고대부터 많은 설화의 배경이 되었고 문학과 예술의 소재가 되어왔다. 또한 다수의 명찰이 자리하고 있어 불가적인 이야기 역시 많은 산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을 찾고 많은 기행문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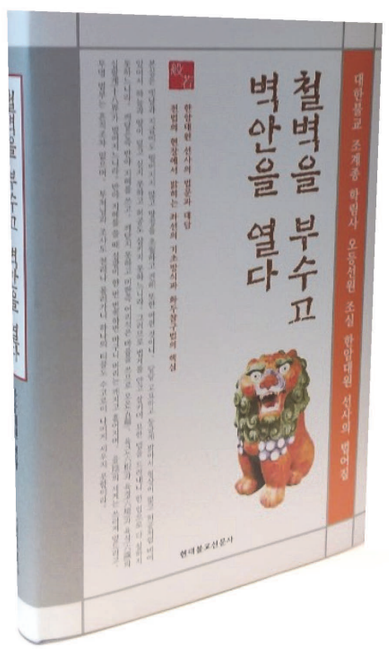
〈봉래일기〉는 계룡산 동학사에 주석했던 청운 이면신이 1894년 음력 3월부터 5월까지 충청도 모처를 출발해 금강산을 돌아본 일기 형식의 기행문이다.

본서의 원전인 〈봉래일기〉는 새로 발굴된 자료로서 유학자들의 금강산 유행기와는 다른 조선 후기 승려의 금강산 유행기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책은 여행의 출발에서부터 돌아오기까지 필자의 여행과정과 만났던 사람들, 그 속에서 느낀 심정을 당일의 날씨와 이동거리를 포함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적고 있다. 또한 여행 과정에서 여막이나 민가보다는 사찰을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특징이 있고, 이동한 사찰의 연기설화와 풍광을 묘사하고 있으며, 금강산 유행기 중 유일하게 금강산 사찰 배치도를 그려 넣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박재완 기자

대대로 이어지는 마음의 등불, 그 황금의 맥을 가리켜 보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의 법어집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본심은 옛날과 지금에도 떨어지지 않고 망정을 초월하고 견해 또한 여읜 것이니, 담담 고요하고 둥글게 밝아서 형상이 없고 허공처럼 비어 있어서 하늘과 땅이 덮고 싣지 못하고 허공도 삼키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법계를 안고 삼키며 묘한 법을 드러내니 한 입으로 다 설하지 못하느니라. 깨달은즉 반야 지혜를 쓰고, 깨닫지 못하고 미한즉 어리석은 마음을 쓰므로 오온, 육근과 육경과 육식의 십팔계가 벌어지느니라.
반야 지혜를 쓸 때 섬광이 한 번 번쩍하면 마구니 머리는 깨지고 흩어지며, 음의 세계는 쓰러져 엎드리고, 무명 범부는 흔적조차 없으며, 부처님과 조사도 천리나 물러가니 하나의 티끌도 수고로이 나에게 세우지 못함이라. —본문 중에서



한암대원閒庵大元 선사
1942년 경북 상주 출생. 1958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하여 혼해 · 고봉 · 석릉 · 관응 · 호경 스님 등으로부터 일대시교를 이수한 후 혼해(混海)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음. 그 후 상원사 · 동화사 · 해인사 · 불국사 · 통도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정진.
고암(古庵) 스님으로부터 전법.
1986년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세우고 납자를 위한 오등선원과 일반 불자들을 위한 시민선방을 열어 현재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

일년 365일 죽비소리가 그칠 날이 없는 충남 공주의 학림사 오등선원. 하루도 빠짐없이 화두와 씨름하면서 '길 없는 길'을 찾아가는 공부인들에게 등불을 밝혀 길을 안내하는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황금의 법맥을 따라 올라가면 석가 세존에까지 이르겠지만 푸른 지구의 동쪽 끝, 한반도의 오늘을 밝히고 있는 법맥 중에서도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은 조실 스님으로 인하여 중요한 한 가지[技]를 차지한다. 스님은 "홀연히 잣나무 꼭대기에서 손을 놓고 한걸음 나아가라는 말을 듣고 / 확연히 의심 덩어리 녹아 깨달았네. / 밝은 달은 홀로 드러나고 맑은 바람은 새로운데 / 늠름히 비로자나 이마 위를 활보함이로다."라고 깨달음의 기쁨을 읊으셨다.

* 한암대원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350쪽 | 값 19,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606호) 주문전화 042)825-1724, 02)2004-8253

학림사 오등선원 충남 공주시 반포면 제석골길 67 전화 042)825-1724